

יהוה יראה

여호와 이레

Genesis 22:1-14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이름(4) : 창 22:1-14

¹³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¹⁴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부 중보기도 : 목회 1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에스더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주일에배를 위한 기도

“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 37:5]

1.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성호을 높여드립니다. 성전과 모든 예배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3.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지난 날의 모든 불순종을 용서하옵시고 공흠을 빼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4. 예배를 통해, 거룩한 임재의 시간, 기쁨의 시간,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곤고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중보자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열납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천상육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시 44:8]

1. 찬양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2.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악기와 시스템, 그리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과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김동철목사님, 김현철목사님, 이정호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최대현장로님, 정용화장로님, 박한진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드러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뱀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

1.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감사로 채우게 하옵소서.
2.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창 22:1-14)’의 말씀을 통해, 매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3. 목사님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지키시고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케 하옵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모든 사이버테러를 막아주옵시고, 악한 계획이 모두 무산되게 하옵소서〉
4. 성도들의 영혼을 소성케, 믿음을 견고케, 생활을 정결케, 구원을 확신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5.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큰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천번째 새벽기도 (4/10/2021 까지)

Freedom 40 기(남) : 3/19~21(여자기:26~28)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 3/29(월)~4/3(토)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오프라인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흑암의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3.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매순간 담대하게 하옵소서.
4.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안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5.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하게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12]

1.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2.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생수로 채우시고 그 생애를 복되게 하옵소서.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4.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아멘!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한 주간도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살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가정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예배적 삶이 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은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다음세대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탁월한 영성으로 무장하여,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2. 다음세대를 방치한 기성세대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교육과 문화 속에 다음세대를 지켜 주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주셔서 다니엘과 에스더 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셀모임도 활성화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4. 새로 시작한 어와나 프로그램에 교사를 더 보내 주시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의 용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마다 속히 치유되게 하옵시고, 백신의 공급도 원활하게 하옵소서.
2. 모든 환우들이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3.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시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쫓아주시며 날마다 주님께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4.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5. Jesus' Light 성도들이 비디오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성령충만 하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2.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모든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선교 현장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3. 핍박과 박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4.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정(특별히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사역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매순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GMI 모든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사역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광식 선교사님(케냐 킬리피) 십자가 복음의 능력/유치원, 초등학교가 3월 19일까지 한학기 잘 마치도록/ 신학교가 열려 13기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하도록/가족의 안전 • 곽보근 선교사님(방글라데시)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재개를 위해/교회 개척 준비를 위해/가족의 안전 • 차훈 선교사님(필리핀) 예배당 건축/ 산속 아이파 족의 건강과 신앙생활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용 선교사님(필리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선교/ 비대면 지도자 훈련을 위해/ 육신의 강건함 • 신광철 선교사님(필리핀)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복음전파와 제자 훈련 • 김인기 선교사님(태국) 성령충만한 교회/ 3명의 신학생을 위해/ 미얀마 성도 중에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예신 선교사님(A국)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유인숙 선교사님(C국) 선훈 3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혜영 선교사님(T국) 암이 왼쪽 영치빠로 전이 됨: 깨끗이 치유되도록/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도록 • 박경희 선교사님(n국) 4번째 유방암 수술의 쾌유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창모 선교사님(터키)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일 선교사님(몽골)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1. CDC에 의하면, 백신 접종과 항체를 가진 인구수의 증가로 인하여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앙 활동과 학교 대면 수업, 경제 활동이 속히 정상화 되게 하시고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2. 텍사스에 눈 폭풍과 수일간 지속된 영하의 기온으로 그와 같은 혹한에 대비되지 않았던 인프라가 파손되며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 주의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하나님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독교 가치관과 진리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이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4. 이제 모든 주가 실내 예배를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온 나라가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 부흥을 통해 믿음과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5.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국의 헌법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평등법 관련 중보기도 요청<프랭클린 그래햄 목사>

: 상원에 상정된 평등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 평등법이 최종적으로 통과 된다면, 법의 광범위한 영향력 하에서, 학교들, 교회들, 그리고 병원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정부의 신념과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이는 강도 높은 강요가 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미치게 됩니다.
 - 평등법은 법의 강제력(공권력)으로 50 개 주에서 크리스천과 다른 종교의 사역 및 종교계통 대학까지 권리를 위협
 - 평등법은 의료전문가들의 양심상의 권리를 박탈할 것(성전환 수술 등 수술 거부권이 없어짐)
 - 종교적 고용주가 그들의 헬스케어 플랜에 성전환 호르몬, 어린이용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수술을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됨
- 제임스 린포드(James Lankford) 오클라호마 주 상원의원의 경고 “평등법은 신앙 은폐 초래할 것”
- 미 조지아 주지사 “신앙인 보호구역 주로 만들 것”
- 뉴욕주립대, SNS에 동성애 반대글 올린 학생에 정학 처분

<열방을 위한 기도>

-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에 복음주의 기독교인 임명...50 년만에 처음
- “튀니지 혁명 10 년 지났지만 기독교인 박해 여전”
- 코로나로 전 연령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 평균 17→20 시간
- “뉴노멀 시대, 온라인 기도 모임 중요성 더욱 커져”
- 미 최대 개신교 입양 단체, LGBT 커플 위탁에 교계 우려 표명
- 나이지리아, 무장 괴한에 납치됐던 학생 300 명 무사 귀환
- 미얀마 군부 계속 유혈진압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주 월요일은 3월 1일 삼일절로 한국민족이 일본인의 압제에 항거하여 시위운동을 하였던 삼일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력 앞에 합병되어 일본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침략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강력한 무단 정치를 펴는 한편 민족 고유문화 말살, 경제적 침탈의 강화로 민족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같은 압제를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1919년 3월 1일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바로 자유를 찾기 위한 진리 운동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3.1 만세 운동에 22만 3천명이 참여했고 그로부터 2년 동안 1,542 번의 만세사건이 일어나고 사망자 7,590 명, 부상자 5,962 명, 투옥된 자 46,948 명이었습니다. 47 개 교회가 불타고 75 채 가옥과 학교가 전소되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앞장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당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시위에 참여하다가 투옥되어 고문을 당하고 그 교회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대신 설교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3.1 운동 당시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3%였지만 그들은 당시 민족의 소망이요 파수꾼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자유를 찾기 위한 진리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세계 2 차 대전에서 연합군에게 패하여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독립하기 위해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며 희생함으로써 얻게 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자유를 빼앗기고 눌리고 포로 되어 끌려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 2:15)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순절기간 우리 성도님들은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기도하시면서 주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며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 장 56 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던 때를 약 A.D.30 년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B.C.1800 년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A.D.30 년 경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1830 여년전에 살던 아브라함이 자신을 만나고 기뻐했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네가 아직 오십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보았느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뵈옵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창 18:1-2) 그런데 그들 중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 장 22 절과 창세기 19 장 1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창 18:22)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창 19:1)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실 때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58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요 8:58)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과거시제를 쓰지 아니하시고 현재 시제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현재 시제를 영원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며 그렇기때문에 그 분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분은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를 하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분은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심정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동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예비하시는 하나님”



성악가이자 찬양 사역자인 킹 워스의 간증을 들으면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벨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선교활동을 하는 맹인 여류성악사였습니다. 킹 워스는 한국인으로 한국전쟁 때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던 중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불구의 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오스트리아로 가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영감에 차있었던지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벨리 그레이엄 한국집회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간증을 한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에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게 10 미터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 놓으세요.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옆으로 피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 한걸음씩 걸어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서 한발자국씩 따라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이나 복종의 동기는 당연히 의무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주된 동기는 그런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기꺼이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 **신 6:5-6**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신 10:12-13**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 **신 11:1**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 **요 14:15, 21, 23**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